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마 7:13-14)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주 험한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작하고 험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크고 화려하고 멋진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넓고 잘 닦여진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에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 열매는 보아지도 하고, 먹음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과일을 먹은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과 소망과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2. 대다수의 사람에게 묻혀 가면 안 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도 베스트 셀러를 읽습니다. 학원에 다닐 때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학원을 다닙니다. 여행을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명소를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군중심리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 묻혀 있기를 좋아하고 주류와 함께 흘러가는 것을 편안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진리를 외친 것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앞에는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교황청이 있었고, 루터의 주장이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신학자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 한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3.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의 선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이란 마음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혹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질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고,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Narrow Gate that leads to Life

(Matt. 7:13-14)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says that we do not enter the broad road through which many people go, but the narrow gate that leads to the tough road. Though the road begins with a small and narrow gate, and is tough, there is living life to the end of road. The road that leads to the broad way looks brilliant but there is destruction awaiting in the end.

1. Don't be blinded by appearance

People instinctively like to be brilliant and nice. If possible, they like to enter the large, brilliant, and wonderful gate and go through the broad and clean, nice road. However, Jesus warns us that the thing that looks brilliant and nice by the outward appearance may lead us into trap resulting in complete destruction.

The fruit of good and evil in which Adam and Eve were tempted by is eye-catching, pleasing to the eye, and charming as much as it is wise. However, the result of eating the fruit that God had prohibited was as miserable as sin. The relationship with God ended, and they finally lost the Garden of Eden.

The way that Jesus showed us externally seems to be shabby, hard, and difficult. However, if we obey faithfully and follow His way, Jesus fully gives our life and fills it with joy, hope, and peace that do not belong to the world.

2. You must not go together with the large majority of people

Another trait of the way that leads to destruction is that there are many people who enter through that way. When they read books, they choose a best seller's book. Even when they choose an educational institute, they go to that institute which is very popular with people. When they take a journey, they go to the noted place that is recommended by most people. Most people would like to know about what other people like, and they prefer what others have chosen.

People have a mass psychology. They like to mingle in the crowd and feel comfortable to go with the mainstream, but the way that a large number of people want and go through is not always right. Those who cry out the truth are few. We can remember the Vatican at the time of the religious reformist Martin Luther. There were thousands of theologians and priests who insisted that Luther's assertions were not based on the Bible. However, God used a man, Luther and through him, God accomplished a great work of religious reformation.

3. Choice between the narrow gate and broad gate

While living our life, every minute, we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choice. Choice means that we have to decide our direction. Choice is the decision of self-controlled will, and it follows great responsibility. That's why we must choose it according to God's word that is not our reason and experience, nor the standards of the world.

For now, we put aside this world, disappearing like fog, and we will enter into the eternal King of God.

My beloved Christians!

You may think that you lose something now, and there is much sacrifice and suffering for you. Nevertheless, by choosing Jesus Christ's narrow gate and way,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spiritually and always receive and enjoy God's blessing as fully as you can, and you will be God's wise children.

VIP 초대 새생명축제 Finale

오늘 | · || · III 예배 / 찬양예배 시간에



16일(금)오전11시에 있었던 VIP초대 새생명축제-"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6일(금)부터 시작한 VIP초대 새생명축제가 오늘 찬양예배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다.

VIP 초대 새생명 축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집회다. 가능하면 동시대적인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소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집회 시간 전부터 각 층마다 티 테이블

을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였고 환영의 찬양, 초대 가수들의 작은 공연과 간증,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든 우리가 그 동안 품고 기도해온 VIP들에게 예수님을 가능하면 잘 전도하려 하였다.

지난 16일 금요일은 오전 11시, 17일 토요일은 오후 5시에, 그리고 오늘 주일 기존의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새생명 축제를 열게 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리고 나온 VIP분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인도자들은 VIP 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본당에서 서울 교회 성도들과 VIP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소원한다.

-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 7주간의 기도와 응답!

19일(월) - 24일(토) 새벽 5시 / 금요기도회는 개인기도로

| | | |
|-------|-------|---|
| 19(월) | 서명철목사 | 관계중심의 기도 (Relationship-centered Prayer) |
| 20(화) | 정수길목사 |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Present) |
| 21(수) | 장석남목사 | 하나님을 예의 주시하라 (Attend) |
| 22(목) | 황 광목사 |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쏟아내라 (Purge) |
| 23(금) | 유문전목사 |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나아가라 (Approach) |
| 24(토) | 박노철목사 | 최선을 다한 자의 이름다움 |

파기도 (The P.A.P.A. Prayer? The prayer you've never prayed) 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깊은 영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7주간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주제로 11월 25일(주)까지 50일간 진행되는 2012년 사명자대회가 은혜 중에 한 주일을 남겨놓고 온 교회는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고 5대 기도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 한다.

마지막 토요일은 온 가족 특별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맘껏 누리게 될 것이다. 새벽기도회 후 직장으로 바로 가실 분을 위해 8층 만나 홀에서 간단한 조식을 할 수 있도록 사명자대회본부는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래리 크랩 박사의 명저 '과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기념주일 · 추수감사절 제11대 장로 · 12대 집사 · 11대 권사 임직

11월 25일 주일 | · || · III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간, 장로 / 집사 / 권사 임직식 거행

우리교회는 다음 주일을 교회설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킨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과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며, 찬양예배시간에는 제11대 장로 · 12대 집사 · 11대 권사 임직식을 거행한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교회설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11대 장로



양춘경 최광성 이계홍 최양진 이강진

12대 집사 : 박상운 최관목 최명환 김영화 임종태 김규환 이기일 정용문 김희동 이경수 송광호 김기욱 손종근 정완진 권성열 박권준 송용훈 이덕진 이태승 박덕호 서은석 임우택 조성환 고석태 최재식 이선표 김주년 최승환 오세복 김은석 정승주 이상호 이지동 이민호 장상국 김두일 정철웅 장윤기 한상욱 권재현 노창훈 한상혁 이겸순 최광혁 (44명)

11대 권사 : 선순례 최향숙 박인자 배옥선 홍건표 조복자 진경자 윤금자 신순자 박시향 김은주 이상설 장항자 이간희 박공순 임인선 유선희 강정숙 김춘호 김애순 조명옥 소만수 박정자 장기숙 이은미 임영숙 문분순 조미란 김경진 김필임 강명신 백정숙 김순영 진교숙 장호림 이인숙 김보경 현승희 박옥 김지덕 박혜선 김혜란 김명순 최은석 이명신 오가연 이상은 이현주 김정제 제오복 윤용미 김희순 이정희 김미성 이혜선 김동진 송경옥 송미령 송금자 박길자 (60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0]

(문 68)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거짓말을 용납하셨습니까?(수 2:4-5)

(답) : 성경은 거짓말을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레 19:11)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 12:22) 또 신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엢 4:25)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진리의 말을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거짓도 다른 모든 죄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기움을 받고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또다른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 را를 누이라고 거짓말 했고(창 12:12-19) 다윗도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 했으나(삼상 21:2),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지만 그녀가 평소 버릇처럼 해온 거짓을 다 포함시켜 용서받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위난에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결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예리고의 경찰이 찾아왔을 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 예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수 2:11)는 바른 신앙을 갖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 라합에게 어떻게 이 같이 큰 믿음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 길을 인도하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전통과 자기 백성을 버리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속임은 매우 비정상적 상황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합의 여호와께 대한 헌신은 예리고성이 무너진 후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반열에 앉게 한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수 6:17-25) 그 후 그녀는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고 마침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마 1:5-6)

그녀에게 거짓말시킨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어 그 백성뿐 아니라 주님으로 부터도 영광을 받아 메시야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의 믿음과 용기를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히 11:31)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야 2:25)고 하면서 행위로 믿음을 보여준 것을 칭찬했습니다. (다음주 계속)

선교사도고팀-동아시아

기도로 엮인 든든한 동역자!

종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까지도 종교, 언론, 출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동아시아. 그 억압된 땅에 있는 이들에게 참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전하고 있는 우리교회 7명의 파송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동아시아 도고팀'이 있다.

동아시아 도고팀은 주일 오후 3시 30분, 903호(또는 만나홀)에 모여 기도에 열중한다. 손성실 권사(도고팀장)는 '동아시아 선교지의 상황은 어렵고, 나는 미약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도고팀)를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 그러기에 선교사님들께서 능히 감당해 내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동아시아 도고팀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는 물론, 팀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 모습을 보며, 도고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이 전해졌다. 기도를 마친 후 인터뷰를 하며 '우리는 기도로 엮여 있다, 든든하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고백하는 도고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해졌다.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길 바란다.

<동아시아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

-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충만함과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길
- 주님의 은혜로 학생들의 양육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기를
- 동아시아 복음화의 지도자 양성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열매 맺기를
- 선교사님들과 신학생들과 북한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진경(편집부)



근 조 (謹弔)

김옥희 전도사 별세



지난 11월11일(주) 박노철 담임목사의 모친, 김은경 사모의 시모되시는 김옥희 전도사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절차는 캐나다 현지에서 모두 진행될 예정이오며 교회 내 개인이나 부서의 개별적 부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선교지 소식

새싹이 나오고 있어요

서광중 선교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철통같은 타일로 모두 깔린 우리 집의 뒤 뜰에서 싹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신기하게 그 새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 그 싹은 자라가고 있었고 아주 가늘고 작기는 했지만 줄기와 잎사귀를 힘겹게 내밀고 있었습니. 하루 이틀 우리 가족의 관심 속에 실처럼 가는 줄기는 계속 타일 위를 춤을 추듯이 구불구불 뻗어갔고 좀 더 많은 작은 잎사귀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

그러던 어느날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습니. 그 가는 줄기가 열매를 맺히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열매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열매는 점점 자라서 맛있는 메론이 되었습니.

누군가가 버린 메론 씨 하나가 타일 사이로 들어갔고 그 씨는 싹을 내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80%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인들이 복음전파를 방해하는 일이 타일만큼 철통같습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무 좁고 촘촘해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 타일 사이의 아주 작은 틈과 그 틈 밑의 한 없이 넓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흙과 영양의 세계를 보시게 하시었습니. 그래서 우리는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탔고 끝없이 그 넓은 세계를 향해 하였습니.

2008년 학업을 마치고 바로 서울로 와서 서울교



인도네시아 신학생들과 함께

회에서 3개월의 목회자 동역훈련을 마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열망에 성급한 저희 가족은 서울교회 동역훈련을 마친 다음날로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섬 말랑시에 도착하여서 동남 아시아 성도신학원에서 교회음악학과를 개설하였습니. 기존의 신학과 학생들과 상담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음악과를 개설하는 일은 쉽지는 않았지만 눈코 뜰새없이 바쁜 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고 무사히 교회음악과도 개설할 수 있었습니.

동남 아시아 성도 신학원은 두 명의 교수를 더 확보할 수 있었고 자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 그 외의 사역으로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음악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회음악 지도자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그들의 고충과 필요를 알게 되었으며, 전국 교회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도시들을 순회하였습니

다. 오마 바빠(아버지의 집) 선교센터를 탄생시켜서 지역 어린이들과 대학생들을 초대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

대학생들에게는 요즘 한류열풍으로 한국어를 지도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 맹기열에 걸리면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계속 체력의 감소가 있었지만 사역을 두고 쉴 수가 없었습니. 결국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서울교회의 박노철 목사님과 선교 위원회에서 잠시 휴식을 원하는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희 가족은 잠시 쉬게 되었습니.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시 인도네시아로 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현재 기도 하고 있습니. 인도네시아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해 주십시오 >

1. 인도네시아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의 등대요, 각 족속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 준비된 프로젝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문화 기독교를 이루어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 제시의 중요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3. 오마 바빠 선교센터의 비전에 적합한 충성되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4. 장소를 제공해 주는 자카르타 열린교회를 위하여
5. 선교사의 영적, 육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비전2020운동

십자가 군병으로!



김규호 성도 (대학부)

어머님, 아버님!
세상물정 모르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이었던 이 철부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떠나 온지가 어제일 같은데 벌써 얼마 남지 않은 전역을 기다리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입대하기 전에 우리교회 비전2020운동을 통해 받았던 교육 덕분에 대대 군종 보조로 봉사하며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군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날 열리는 우리교회 비전2020 기도회는 군 복음화와 군 복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국을 지키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따라 더욱더 충실하게 군 생활을 하게 하시며, 아직 주님을 모르는 군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사를 주시어 군 복음화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비전2020운동은 군에 입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병들을 전도하여 진중세례를 주어서 군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명량한 병영생활을 조성케 하는 신앙전력과 운동이라고 합니다.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저를 이처럼 위대한 사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20여 개월을 뒤 돌아 보면 입대하기 전 우리교회 비전2020운동의 군 입대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강한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어머님, 아버님!
나 밖에 모르던 철부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내 조국, 내 민족,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멋진 청년으로 거듭나서 돌아옵니다.
사랑합니다.

2012년 11월을 맞으면서 20사단에서 규호 드림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8일(주) 섬김의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설교 및 성찬예식 집례를 한다. 21일(수) 한국로잔위 월례모임 설교한다. 23일(금) 각 신학대학 로잔 동아리모임연합 로잔캠프 주제강연을 한다.

■ 이갑진 장로 11월21일~23일 한일국방교류 협력차 일본출국
■ 수상: 11교구 안상희 성도(인디애나 음대 작곡과 박사과정, 안송검 성도 장녀) 제31회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
■ 연주회: 서울필로첼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단장 14교구 박수강 집사 세종문화회관 제1홀 11.21(수) 오후 7시30분 553-0684

■ 주간식당봉사: 도르가전도회(11.18) 루디아전도회(11.25)
■ 금주의 식사: 소원섭 박진선 성도 가정
김은기 조민희 성도 가정
(결혼을 감사드리며)

■ 떡과일 제공: 오정수 장로 이영희 권사 가정
(전정연 회장 취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주 우리교회는



▶ (성) 지난 금요일(16일) VIP 초대 새생명축제 - 결신하는 VIP들과 설교하시는 박노철 목사
▶ (중) 지난 목요일(15일) 오정수 장로 전국장로연합회회장, 한국장로신문사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 설교하시는 이종윤 원로목사님, 축하하시는 이우선 원로장로
▶ (아) 지난 주일(11일)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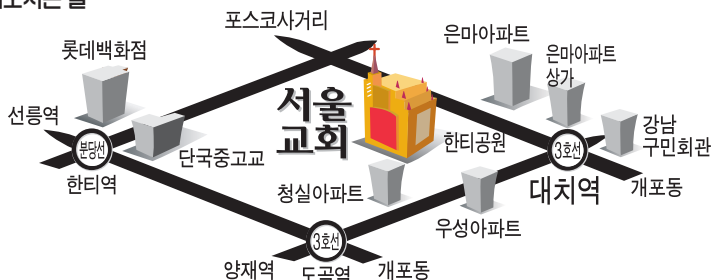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교회를 방문하고 결신한 모든 VIP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양육 되도록
2. 11/19(월)~24일(토)까지 새벽5시에 열리는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7주간 기도했던 응답이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3. 다음 주일에 있는 교회설립 21주년 감사와 추수감사, 성찬식과 장로/집사/권사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요일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일기도회 | 오후 8시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